

이길상(부산상고 은사) 1차 구술

1. 구술자: 이길상
2. 면담자: 강희영
3. 촬영자: 권용협
4. 구술일자: 2011년 12월 9일
5. 구술장소: 부산 해운대구 구술자 자택
6. 구술분량: 05분 11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2002년 경선 당시 동문 체육대회에서 가진 만남

구술자 : (2002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는 그때 마음속으로 걱정을 했지요. 걱정을 하면서도 어 제주도에서 근소한 차이로 노무현이가 표를 얻었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 다음에 울산서, 울산서 다시 또 주민여론투표¹⁾를 한다 이랬는데. 울산서 한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다음날 집에 전화가 왔어요. 부산상고에서 동창회 전체 체육대회가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그리 오고 하니까. 그래 역전됐다, 울산서 역전했다 그 얘기 들었는데 대통령이 내(나)하고 어느 선생을 찾는데 그 선생은 연락이 안 되는데 나를 부산상고 동창회 운동장에서 전체 체육대회 하는 자리에 좀 나와 달라 한다, 이래가지고. 그래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 부산상고로 갔지요. 아직, 지금도 부산상고가 개성고등학교가 돼가 있지만 아주 운동장이 넓고 스탠드가 잘 돼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가운데 연단이 있고 그 스탠드 꼭 사람이 차고 앞에 천막을 쳐가지고 졸업생들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앉은 사람들 전부 나를 보는 거라. 이쪽을 고개를 또 군대에서 우향우나 우로 봐나 좌로 봐 하듯이 이래 보는데. 내가 이래 보니까 노 대통령이 앉아 있는데 뒤에 홍경태²⁾라고, 홍경태가 일어서서 대통령 그때 노무현 후보에게 귀에다 뭐라고 이래하는 것 같애. 그래 자기가 벌떡 일어서더니 그때 자기가 ‘이길상 선생 저기 온다. 앉는다’ 이랬던 모양이지. 그래, 자기가 일어서가지고 그쪽에서 한가운데에는 연설대가 있고 마이크가 있고 이런데 그거를 한가운데 그 반을 통과해가 또 이래가지고 이쪽을 올라니(오려하니) 시간이 걸리지. 노 대통령

1) 국민참여경선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

2)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8년 후배로 1993년부터 후원회 업무를 맡았다.

이 아래 걸어가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아래 봐. 결국 와가 내 옆에 딱 앉으면서 날 덤석 잡고 ‘선생님, 오래간만입니다’ 하면서 앞을 가리 키는데 본부석 앞에 오십삼(53)회 텐트가 있어요. 있는데 ‘정각 열두시에 선생님 우리, 저저 오십삼(53)회 동기본부니까 천막 앞에서 만납시다’ 해가지고 (나는) ‘아, 바쁜데 일이나 보라고. 이따 시간 있으면 만나지’ 이래가 자기가 보러 저쪽으로 갔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식이 끝나고 게임을 하는데 자기는 인제 각 천막을 기별(기수별) 천막을 돌아다니고.

그래서 인제 거 또 아래 가니까 자기도 정확한 열두시에 딱 오더라고. 그 래 왔는데 거기 있으니 그때 따라오는 사람이 케이비오(KBO) 총재하던 신상우 씨하고 그 다음에 이기택이 하고 (같이 왔어요). 만나가지고 앉아가 지고 대통령이 여(여기) 앉고 내 여(여기) 앉고. 자기는 이래가 서이서 (셋이서) 가져오는데. 너이지(네티지), 도시락을 먹으면서 거 자기가 그 때 한 말이 기억나구만. ‘이런 데 선생님 모셔서 안 됐습니다. 마 소풍 온...’ 보통 같으면 우리 같으면 마 ‘앞으로 좋은 자리 모실 날이 있겠지’ 이라면 될 건데 ‘안 됐습니다’ 하며 뭘 말로 하나 추가하는 것이 “소풍 온 기분으로 드십시오” 이러더라고. 그 말 한마디가 내(나)한테 그러대. 그래서 식사를 하고 좌우간 성공하란 말이지, ‘성공을 하면 또 만날 기회가 안 있겠나’ 말이지. 그래서 그 (내가) 짠 일 보라고, 식사는 그래서 자기가 “참 죄송합니다” 이래서 거기서 식사하고 헤어졌어요.

■ 구술자 주요이력

1931. 울산 출생

경남고등학교 졸업

체육과 검정고시 합격 후 부산상업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등 부산·경남 지역 고등학교 체육교사 역임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재학 시기(1963~1966) 3년 간 체육과목을 가르쳤다. 학생지도부 교사로 두발단속 등을 담당했다고 한다. 2002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열렸던 부산상고 동문 체육대회, 2003년 5월 청와대 초청오찬 자리에서 노무

현 대통령과 만남을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다.